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75호 1판 (음력 6월 8일) 2014년 7월 4일 금요일

광산을 '제3 인물' 전략공천

새정치, 경선 원칙 뒤집어 후보들 반발 '후폭풍' 클 듯

천정배 전 의원은 배제
권은희 공천 가능성 낮아
기동민은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김연관·이개호·이석형 대상
선호투표 아닌 여론조사로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 을 등 5곳의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광산 을의 경우, 천정배 전 장관의 경선 배제에 이어 당초의 경선 원칙이 뒤집히고 전략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광주를 정치적 텃밭으로 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만'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당 지도부에서는 광산 을 지역구 후보를 기존 경선 후보들을 배제한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광산 을과 서울 동작 을, 수원 을, 수원 병, 수원 정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광주 광산 을 경선 후보였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 을 지역구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하지만, 허동준 지역위원장 등 기존의 경선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과연 전략공천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미지수다.

광산 을은 전략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천정배 전 장관의 출마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으며 당 지도부에서는 기존의 경선 후보를 배제한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광온 전 대변인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지도부 인사들은 '가능성이 낮은 카드'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어떠한 인사를 전략공천할 것인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 을, 수원 병, 수원 정 지역구의 경우, 내부 여론조사를 통한 단수 후보 선정과 전략공천이 병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던 광산 을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천정배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지역 민심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오락가락 공천 행보에 호남의 인재들이 정치적 타격을 받고 지역 민심의 분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 지도부의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호남의 인적 재원이었던 이용섭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치명적 상처를 입은데 이어 이번 광산 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했던 천정배 전 장관도 공천 배제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됐다.

여기에 지도부의 무원칙한 공천 행보에 광주 민심의 분열이 커지고 정치적 냉소주의가 심화되면서 지역적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한편, 담양·함평·영광·장성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김연관, 이개호, 이석형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론조사식 선호투표제가 아닌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생 발전' 손잡은 광주·서울

윤장현 광주시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서울-광주 상생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걸어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중 정상 "북핵 반대·FTA 연내 타결"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5면〉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취임후 5번째로 공식회동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 AGYOS 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주시, 어등산 골프장 사업 원점서 재점검

업자 이익만 챙긴 사실 드러나면 강력 조치

법원조정안 합의 철회 검토

광주시가 ㈜어등산리조트(골프장)의 몰염치한 '기부토지 반환 소송'〈광주일보 3일자 7면〉과 관련, 테마파크 조성 등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 중심·사람 중심'을 최우선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편의를 무시하고 업자의 이익만을 챙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업자와의 법원조정안 합의 철회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5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273만㎡ 가운데 43%(300억원대)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낸 상태다.

어등산리조트는 시민편의 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을 우선 조건으로 광주시로부터 어등산 관광단지 터 273만㎡를 매입한 뒤 테마파크 조성은 하지않고 개발옵션인 '돈 되는 골프장'만 조성했으며, 2012년 6월에는 부도 직전이라며 골프장만 우선 개장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광주지법 민사5부 조정현 판사는 어등산리조트에서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어등산리조트와 광주시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업자-법원-광주시'로 연결되는 특혜의 혹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먼저 지어야할 테마파크는 짓지 않고, 수익시설인 골프장만 개장한 행태에 대해 비난여론이 들끓었지만, 광주시는 업체의 부도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쳐 빈축을 사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경관녹지 등의 기부 계획은 어등산리조트측에서 법원에 먼저 제안한 내용으로, 이제 와서 기부한 토지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며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재점검한 뒤 위법사실 등이 있으면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